

# 한국 경찰모자의 형태개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강 병 석

目 次	
I. 서 론	6) 기 타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한국 경찰모자 조서관찰
III. 이론적 배경	1) F.G.I. 조서관찰
1. 외국 및 한국 경찰모자의 변천	2) 설문조사 및 실물관찰
2. 한국 관모류의 형태적 특징	3. 한국 경찰모자 연구모형 제시
IV. 결과 및 고찰	1) 정도 및 여모
1. 외국 경찰모자의 특징	2) 방한모
1) 영 국	3) 근무모
2) 프랑스	V. 결론 및 제언
3) 이태리	참고문헌
4) 독 일	ABSTRACT
5) 일 본	

## I. 서 론

오늘날 수많은 대인접촉이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즉각적 판단에 의해 서로의 광범위한 첫 인상을 형성한다.<sup>1)</sup> 특히 유니폼에 있어서 착용자의 인상을 형성해 주기 위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요소로서는 유니폼의 색상 및 부착물과 함께 모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찰 제복에 있어서도 모자는 착용자의 신분과 역할에 대한 인상을 즉각적으로 강하게 전달함으로써 민생치안을 위한 범죄예방의 효과뿐만 아니라 경찰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출해 주게 되는 중요한 제복 아이템이다.

1945년 광복이후 6.25와, 1962년 제3공화국, 1975년 10월 유신, 1981년 제5공화국 등의 정치,

사회적 변화를 기점으로 하여 한국 경찰 제복의 형태는 부분적 혹은 대폭적인 개선이 이뤄져 왔으며, 최근에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1995년 10월 11일부로 경찰제복의 개선 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경찰모자의 경우에는 1946년 미군정 산하의 경무부 시절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형태로 발전된 이후 현재까지 그 형태나 기능측면에서의 개선이 매우 소폭으로 이뤄져 왔으며, 일반적으로 경찰모자에 대한 인식이 당연하고 무관심하게 받아들여 질으로서 실제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서울 올림픽 개최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방화, 국제화의 추세에 따른 경찰활동 형태의 변화와 함께 경찰모자에도 경찰 이미지의 한국적 독자성과 상징성의 도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제복에 관한 선행연구<sup>2)</sup>를 바탕으로 하고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경찰모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경찰의 독자적이며 상징적인 이미지가 표출될 수 있는 경찰모자 형태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경찰모는 예모, 정모, 근무모 및 기동모로 구분되는데 기동모는 색상과 재질이 근무모와 상이하나 형태는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예모, 정모, 근무모를 대상으로 정하고 정모는 교통경찰 정모, 일반경찰 정모, 여경 정모로, 근무모는 교통경찰 근무모, 일반경찰 근무모, 방한모로 구분하였으며, 예모를 별도품목으로 하였다. 일반경찰 모자의 색상은 1995년 개정된 경찰제복의 색상을 기본으로 하며, 모자의 형태적 개선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특공대, 악대, 의장대, 경호실 등을 포함하여 14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 특수 부서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서 경찰모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인식을 위한 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내용은 첫째, 국내의 경찰모자에 관한 문헌 및 실물조사, 둘째, 경찰 및 경찰제복에 관한 F.G.I (Focused Group Interview)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된 내용의 분석, 관찰의 결과에 따라 한국경찰 모자의 개선안을 설정 제시하도록 하였다. 설정된 개선안의 구체화된 실물제시 및 검증은 경찰청 관계자 및 모자 제조업체 관계전문가의 협조를 구해 진행하였다.

실물조사에서 외국 경찰모자의 조사는 1994년 2월 13일부터 23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벨지움, 이태리의 경찰청 장비과를 출장 방문하여 수거한 실물과 브로슈어를 기본자료로 삼았으며 각국 관계자와의 인터뷰 조사 및 관계 문헌의 내용을 참고자료로 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1994년 4월 1일자로 신 제복의 개선착용이 이뤄짐에 따라 4월

24일부터 26일까지의 출장조사에 의한 실물자료와 브로슈어를 기본자료로 하였다.

경찰모자에 관한 F.G.I. 조사는 1994년 2월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지역의 중부, 종로, 서대문, 동대문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들로 대민활동이 가장 큰 의경에서 경사까지의 직급을 가진 49명을 대상으로 한 경찰방문 인터뷰와 서울 시내의 문화 교육계 인사, 디자인계 인사, 일반 직장인, 가정주부, 대학생 등 42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제복 개선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내용 중에서 경찰모자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연구의 자료로 삼았다.

경찰제복에 관한 설문조사는 1994년 11월 경찰청 회의실에서 직능, 직급, 지역별로 선정된 215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제복 전반에 걸쳐 26개 문항을 작성, 실시한 조사 내용중에 모자에 관한 내용문항을 발췌하여 자료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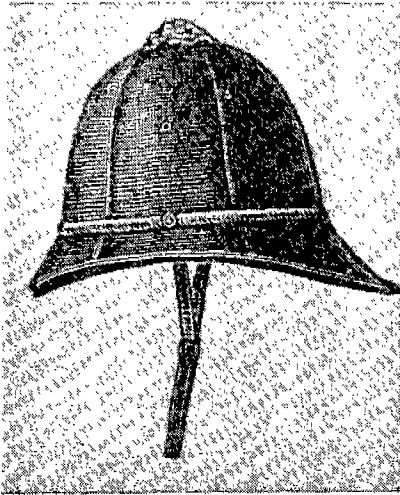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모자의 실물제작을 위한 과정으로 Hat의 형태인 정모는 도면제작과 이에 따른 석고 모형 제작 과정을 거쳤고, Cap의 형태인 근무모는 도면제작과 종이 모형제작을 거친 후 본작업에 착수하도록 하였는데 본작업은 모자 전문 제조업체인 중앙양행의 관계 전문가에 의한 협조로 진행되었다.

## III. 이론적 배경

### 1. 외국 및 한국 경찰모자의 변천

세계 최초의 제복경찰은 1750년 영국 London의 Bow Street 행정관인 Henry Fielding에 의해 발족되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때문에 곧 해체되었고 1805년 John Ford경에 의해 다시 발족된 최초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경찰은 Bow Street Mounted Horse Patrol로 명명되었다. 경찰의 모자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죽으로 제작되었으며 그들의 출동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높

이가 6인치나 되었다. 1822년에는 Robert Peel 경이 오늘날과 같은 도보순찰 경찰인 Bow Street Runner를 발족시켜 경찰관의 수를 늘렸다. 1863년에 이르러서는 코르크 재질의 기본형 위에 검은 사지천을 덮은 Helmet <그림 1>이 런던의 모든 경찰관에게 지급되어 오늘날까지 그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sup>3)</sup>



<그림 1> 1905년경의 영국 HELMET

1880년대에는 런던 Knox사에서 제작 수출된 같은 형태의 Helmet이 New York시 경찰에게 착용되었으며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Helmet과 유사한 형태의 경찰모자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Helmet을 착용하던 New York경찰은 1920년대에 이르러 자동차와 모터 사이클의 보급에 따라 더욱 실용적이고 간편한 경찰모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처음으로 고위간부 경찰들만 착용하던 챙이 달린 모자(Peaked Cap)<그림 2>를 전 경찰에 점차로 확대 착용시키게 되었다.<sup>4)</sup>

뒤이어 유럽의 여러국가들도 Peaked Cap을 군인 및 경찰모자로 대체하여 착용하게 되었고 이 형태의 모자는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화된 형태의 군, 경찰용 모자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림 2> 1918년 초기 형태의 PEAKED CAP

우리나라의 경찰복제는 조선시대 중기 성종조에 좌, 우 포도청에서 입었던 具軍服인 포도대장과 나졸복에서 그 맥을 찾을 수 있다.<sup>5)</sup> 이러한 具軍服은 고종 32(1892)년 4월 각령 78호로 육군복장규칙이 바뀌면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sup>6)</sup> 이와 함께 1895년 단발령이 내려짐에 따라 구군복과 함께 착용되던 우리나라 고유형태 모자인 髷笠(전립)은 일본이 프랑스에서 도입한 원통형의 챙이 달린 Kepi형태의 모자로 전환 착용되게 되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완전히 일본 경찰로 대체되었다가 광복이후 미군정 산하 경무부에 소속된 이후, 6.25를 거치는 동안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Peaked Cap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그림 3>

6.25이후에는 직능에 따라 교통경찰, 기동순찰, 사이카순찰, 의근경찰로 구분되었다. 그 후 1962년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군인복제에 관한 규정(각령 제700호)”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군복의 변화와 함께 경찰복의 변화를 가져왔다. 10월 유신 직후인 1975년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승격되면서 경찰제부터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경찰복제 개선지시에 의해 경찰제복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가

이뤄졌으나, 1982년 10월 다시금 대통령의 경찰관 복장개선에 관한 지시에 의해 재 개선 작업이 이뤄지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sup>7)</sup>

그 후 1985년 일부 개선되어 착용되어오던 경찰 제복은 문민정부수립 이후 1995년 10월 1일자로 최종적으로 새롭게 개선되어 착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제복색상의 변화에 따른 모자색상의 변화와, 부분적인 부속물의 변화가 소극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경찰모자의 형태는 현재까지 Peaked Cap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그림 3〉 미국의 영향을 받은 초기 한국경찰의 PEAKED CAP

## 2. 한국 관모류의 형태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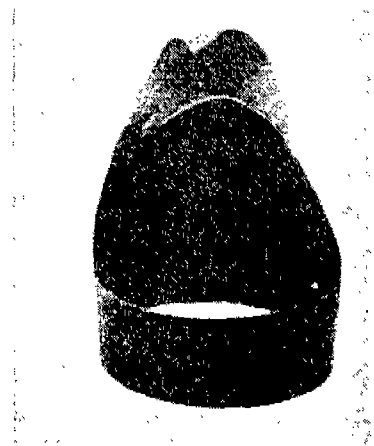
우리 민족은 북방계 유목민이었던 만큼 방한용 또는 폐양용으로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관모를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관모의 전성기라 할만큼 절봉, 책, 변, 건뢰, 갓 등 다양한 형태의 관모가 등장하였다. 이것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면 건으로 망건이나 유건을 쓰고 샓갓과 갈모가 있으며, 초립이나 전립, 죽제립등이 있고 관으로는 양관, 사모등이 있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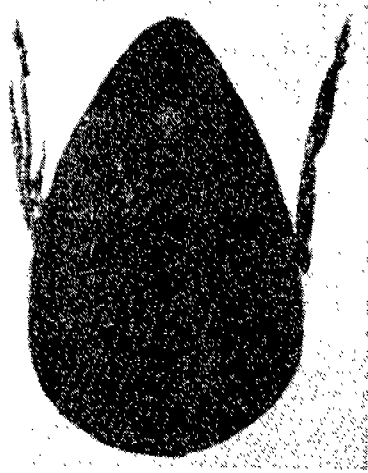
고구려 관원들이 착용하던 책은 앞이 아리고 뒤가

솟은 뾰족한 형태이며〈그림 4〉 신라시대의 태자복에서 보여지는 관은 모자의 양옆에 깃털장식을 하고 곡선적인 형태로 뒷쪽이 솟아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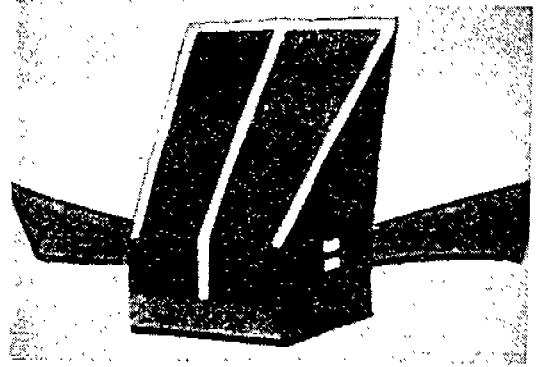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유건(儒巾)은 흑표로 만든 건으로 각 가정에서 손쉽게 접어 쓸 수가 있다.<sup>10)</sup> 형태는 뒷쪽으로 솟아 있으며 중앙 부분이 접혀져 양쪽으로 곁이 솟아 있는 듯한 모양을 이룬다.〈그림 6〉. 유관자의 통상복에 병용한 장도관의 형태도 뒷쪽으로 중앙부분이 접혀지면서 솟아 오른 형태이다. 각건은 제수창, 향발, 사선무, 장생보연지무등에 무동들이 썼다.<sup>11)</sup> 전체적으로 각이 진 것이 특징이며 사선의 형태로 뒷부분이 솟아 있다.〈그림 7〉 그 밖에도 평정건, 사모, 익선관 등의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자의 뒷부분이 앞부분보다 높게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양태가 달린 모자로는 여러 종류의 립이 있는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 양태의 크기 및 대우의 형태가 약간씩 변형된다. 조선시대 중기에는 양태의 지름이 70cm정도로 가장 넓어졌던 시기이다.<sup>12)</sup> 구군복과 함께 포도대장의 모자로 사용되었던 전립은 짐승의 털을 다져 만든 Felt모자로서, 모옥에는 여러가지 장식으로 품등을 장식한 것으로 모옥이 貉形을 이루다가 정상에 이르러 옥로를 탈 수 있도록 약간 평평하게 되어 있다.<sup>13)</sup>〈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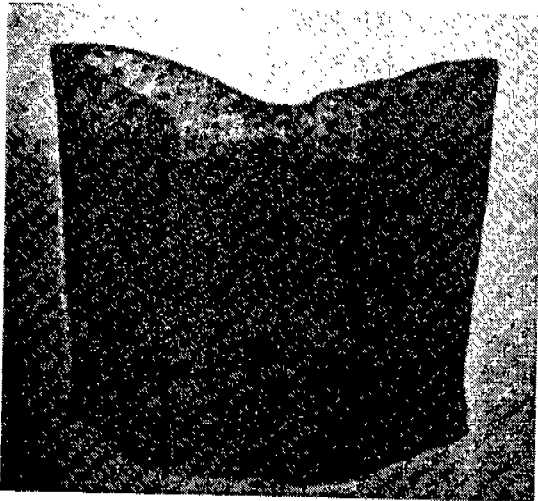
〈그림 4〉 고구려 관원의 관모인 책



<그림 5> 신라 태자복에서 보여지는 관



<그림 6> 조선시대의 유건



<그림 7> 무덤들이 사용했던 각건



<그림 8> 구근복과 함께 착용되던 조선조의 전립

#### IV. 결과 및 고찰

##### 1. 외국 경찰모자의 특징

###### 1) 영 국

세계 최초로 제복경찰을 발족시킨 영국은 유럽의 다른 국가보다 다소 늦은 Peaked Cap을 도입하여 전통적인 경찰모자인 Helmet과 병용하고 있다. 검정색을 기본색으로 은색, 철제 장식물과 Check up Board문양 띠를 경찰의 상징물로 채택

하여 남, 여 경찰의 모자에 사용하며 영국령 국가의 경찰모자로서 지역적 전통성을 살린 터번 형태 경찰모자에도 같은 Check up Board 상징물을 사용함으로써 통일성을 부여한다. <그림 9> 전통성을 기본으로 품위성, 차별성, 통일성이 높은 반면 활동성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인다.

###### 2) 프랑스

1993년부터 새로운 복제규정에 의거하여 간소화된 경찰복을 지급하고 있는 프랑스는 경찰모자

에 관해서는 기존의 이원화된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나폴레옹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군인들에게 착용되어 오던 챙이 있는 원통형의 Kepi<그림 10>는 경위 이상이 착용하는 경찰모자로서 원통의 윗부분에 둘러진 띠의 색상에 의해 직능을 구별하며 고위직 경찰모자에는 은색의 실로 수 놓아진 자수 문양이 모자챙과 모자의 뚜껑부분에 새겨져 직급을 구별할 수 있다. 경사 이하는 Peaked Cap을 착용하며 모자띠의 색상에 변화를 줌으로써 직능을 구별할 수 있다.

이원화된 규정으로 경찰모자의 통일성은 다소 떨어지나 전통성, 품위성,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영국의 현행 HELMET과 CHECK UP BOARD 문양이 도입된 영국령 극가의 터번 경찰모자



<그림 10> 프랑스의 전통적 형태인 KEPI 경찰모

3) 이태리

짙은 청남색 자켓과 붉은 라인이 봉제된 열은 청회색 바지의 돛비형태 정장을 착용하고 부속물로 금색 철제 장식물을 사용하여 화려한 느낌을 준다. 자켓과 같은 색상의 모자는 Paeked Cap의 형태로 남, 여 경찰의 구분없이 공히 착용함으로써 통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직급의 구분은 청색 모자띠에 같은 색으로 제작된 월계수 일형태의 라인으로 식별됨으로서 경찰내부 인식을 위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통 경찰의 경우에는 수지 코팅된 전통적 형태의 백색 Helmet을 남, 여 경찰이 공히 착용하여 통일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11>

통일성, 전통성, 품위성이 높고 활동성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남여 공용으로 착용되는 이태리 교통경찰 HELMET

4) 독 일

통일 이후 1993년 10월자로 우선적으로 개선된 여자경찰의 재복이 착용되고 있는 독일은 Peaked Cap의 형태를 변형시킨 경찰모자를 제시하고 있다. 모자 상단의 둥근 Crown 부위용 라우 비네칭

형태로 제작하고 모자 장식물의 위치를 중앙 부위에서 우측으로 이동시킴으로서 타국가 경찰모자의 형태와 차별화되는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2>



<그림 12> 비대칭 형태의 독일여자 경찰모자

색상은 카키색을 기본으로 황동색의 컬체 장식물을 사용하여 다소 경직된 밀리터리 룩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차별성이 높고 전통성, 품위성은 다소 약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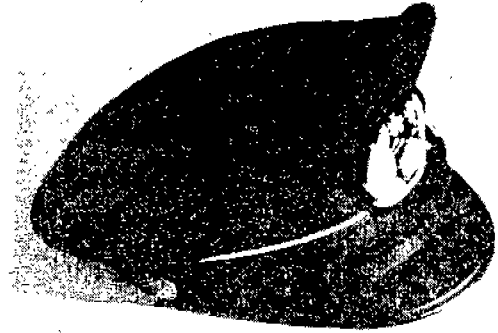
5) 일 본

1994년 4월 1일자로 전반적인 경찰제복의 개선 작업을 실시한 일본은 청남색의 색상을 기본으로 한 Peaked Cap을 남자경찰 모자로 채택하고 있으며 여자경찰 모자의 형태는 윗부분이 둥근 Bowler Hat의 변형으로 남, 여 모자의 기본적 형태를 이원화하고 있다.

계절에 따라 세가지 종류로 분류 제작된 Peaked Cap은 Crown하단을 통기성이 좋은 그물망 수지를 사용하여 전체를 제작한 성하용과 측면 중앙 부위부터 뒷면까지 반쪽을 그물망 수지로 제작한 춘, 후용, Crown부위와 함께 전체를 천으로 제작한 동절용으로서 세심한 배려가 엿보인다.

특히 경찰모자에 사용되는 모자챙, 턱끈, 장식물, 복지등의 자재를 개선함으로써 모자의 증량을

증여 기존 일본경찰 모자에 비해 50g이상 감량하였다. <그림 13>



<그림 13> 경량화된 일본의 개선 경찰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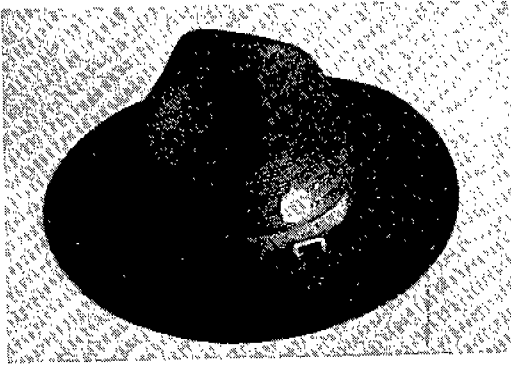
활동성과 현대성이 높고 전통성과 품위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6) 기 타

벨지움의 경찰도자는 기본적으로 Royal Blue로 불려지는 청색의 형태로서 고급 Wool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복외에 연미복을 경찰복제로 도입할 만큼 심미성과 품위성을 위주로 하고 있다. 품위성과 차별성이 높은 반면 활동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문헌과 비디오 테이프자료에 근거하여 조사된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경찰모자를 채택하며 복제에 관한 규정도 각 주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Peaked Cap의 경우에도 뉴욕은 8각도의 형태를 착용하고 있으며 Nevada주의 경우에는 서부 미국식 전통 모자인 Felt Hat을 착용한다. <그림 14>

그밖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두 Peaked Cap 형태의 경찰모자를 착용하며 색상과 모자 장식물을 통해 지역적 특징을 구별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4〉 미국 NEVADA주의 전통을 살린 FELT HAT

## 2. 한국 경찰모자에 관한 조사관찰 결과

### 1) F.G.I.(Focused Group Interview) 조사 관찰

경찰제복에 관한 경찰방문 인터뷰와 문화 교육계 인사, 디자인계 인사, 일반 직장인, 가정주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 인터뷰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근무모는 무겁고 달려야 할 경우 잘 벗겨진다.
- 특히 112 순찰대와 도보 순찰대에서 불편함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
- 교통 경찰모자는 남, 여 경찰 모자의 색상이 상이하여 시각적인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 일반 경찰의 경우 연중 예모 착용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경무관급 이상의 예모에는 장식성이 과도하게 가미되어 있다.
- 방한모는 초라한 느낌을 주며 규격이 미비하여 불편하다.
- 일반 경비원들의 모자 색상 및 형태가 경찰 근무모와 유사하게 제작착용되어 경찰모자의 차별성이 약하다.
- 계절에 따라 근무모를 하절기용과 동절기용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 2) 설문조사 및 실물관찰

경찰제복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Peaked Cap과 전립형 모자, 그리고 새로 디자인된 관형 Cap의 스케치안등 3종류의 그림을 제시하고 그중 선호안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표 1〉

모자에 관한 설문내용은 정모 및 활동모의 형태, 정모 장식의 색상, 공공기관 경찰모자의 차별화 여부, 방한모의 형태 등이며, 교통경찰 모자의 형태에 관한 응답 내용은 현행 경찰모자인 Peaked cap을 선호하는 비율이 80%(172명)로 나타나 형태적인 개선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여섯등급으로 되어 있는 모자의 계급별 구분은 조사 대상자의 74%(159명)가 세등급 이하로 축소할 것을 원하고 있어 모자에서 나타나는 직급의 차이에 대해 대다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공항 경찰, 국회 경비대 등 공공기관 경찰모자의 형태적 차별화에 대하여는 62%(133명)가 차별화 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정모, 근무모 및 활동모의 장식에 사용되는 색상으로는 정모 및 근무모 73%(156명), 활동모 57%(122명)가 금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경위 이상직급에서만 사용되는 금색을 전 경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길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통경찰 모자의 재질 선호에 관한 결과는 흰색 인조가죽 48%(103명), 흰색 면직물 47%(101명)로 인조 가죽과 면직물에 대한 선호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능적 측면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무게에 관한 비교측정을 실시한 결과 한국 경찰정모는 250g으로 일본의 정모 180g, 프랑스의 정모 200g, 이태리의 정모 230g 보다는 무겁게 나타났으나, 영국의 정모 260g이나 헬멧 675g에 비해서는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경찰모자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실 문 내 용	문항에 따른 응답내용 결과(총 215명)				
	정모의 형태	PEAKED CAP	관형 CAP	전립형 HAT	기 타
172(73%)		18(8.4%)	14(6.5%)	11.(5.1%)	
정모의 장식 색상	금 색	은 색	기 타		
	156(73%)	49(23%)	10(4.7%)		
정모의 계급별 구분	3단계 구분	4단계 구분	2단계 구분	전체 동일	6단계(현행)
	137(64%)	25(12%)	22(10%)	13(6%)	18(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단계 : 의경 / 경사 - 경위 - 경감 - 경정 - 총경 - 경무관</li> <li>• 4단계 : 의경 / 경사 - 경위 / 경감 - 경정 / 총경 - 경무관</li> <li>• 3단계 : 의경 / 경사 - 경위 / 경감 / 총경 - 경무관</li> <li>• 2단계 : 의경 / 경사 / 경위 / 경감 / 총경 - 경무관</li> </ul>				
활동모	PEAKED CAP	관형 CAP	현행 활동모	기타	
	115(57%)	82(38%)	7(3.3%)	11.(5.1%)	
활동모의 장식 색상	금 색	은 색	기 타		
	122(57%)	80(37%)	13(6.0%)		
공항, 국회경비대등 공공기관의 경찰관모자 차별화	차별화 해야 한다	필요 없다	기 타		
	133(62%)	72(33%)	10(4.7%)		
공공기관 경비대의 모자형태	전립모	개선정모	관형 CAP	기 타	
	91(42%)	64(30%)	31(14%)	29(3%)	
교통모의 재질	흰색 인조가죽	흰색 천	기 타		
	103(48%)	101(47%)	11(5%)		
여경 정모	개선모	관형 CAP	전립형 HAT	현행모	기 타
	160(74%)	29(13%)	9(4.2%)	7(3.3%)	10(4.7%)
방한모	1안	2안	3안	현 행	기 타
	124(52%)	61(28%)	25(12%)	-	5(2.3%)

3. 한국 경찰모자의 연구모형 제시

경찰모자의 형태개선을 위해 조사되고 관찰된 내용의 결과로서 나타난 개선방향의 주안점은  
 첫째, 한국의 상징과 경찰의 독자적인 형태가

반영된 디자인,

둘째, 모자 시스템의 간소화와 통일성을 추구할 수 있는 디자인,

셋째, 활동성과 현대적 심미성이 가미된 디자인의 추구로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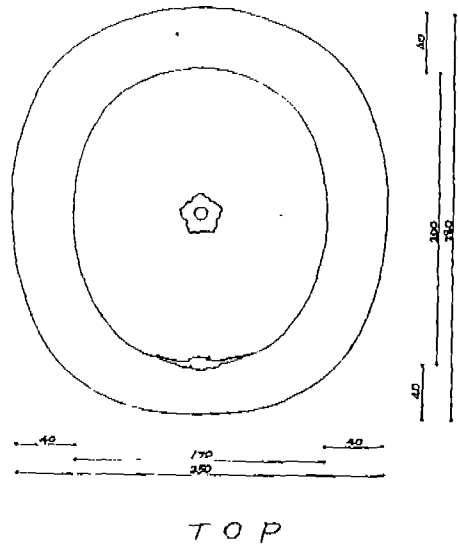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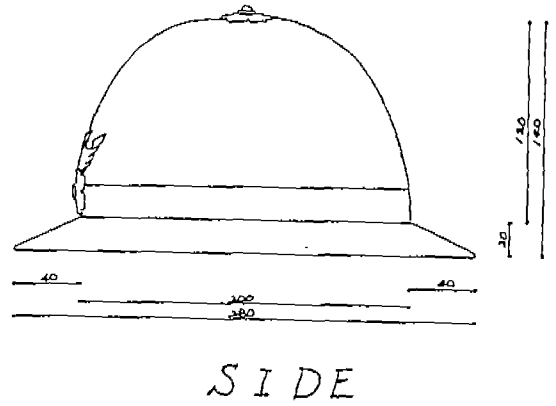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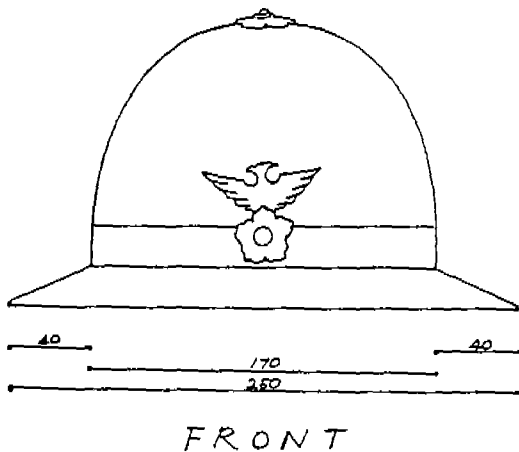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디자인 방향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 관모류의 형태적 특징에서 얻어진 제 요소를 이용하여 30여개의 디자인 스케치를 실시하였다. 그중 형태가 상이한 3종류 6개 디자인을 선정한 후 경찰청 장비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3종류 3개 디자인으로 압축하였는데 그 중 1종류는 과거의 Peaked Cap과 동일한 형태이므로 형태개선을 위한 본 연구의 제안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1) 정모 및 예모

(1) 형태적 특성

조선시대 무관이 사용하였던 전립의 형태에 현대적 심미성을 부여한 형태로 한국의 전통적 고유성을 지닌다. 정모로서의 품위성이 있고 고유한 형태로 유사제복의 모자나 외국의 경찰모자에 대해 차별성을 높인다.

도면 <그림 15>에서와 같이 모옥의 깊이를 12cm로 하며 양태의 길이는 4cm로 아래 쪽으로 약간 사선을 이루게 하여 햇빛이나 눈비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한다. 양태는 가로 지름 25cm, 세로 지름 28cm의 타원형이며 모정에는 한국경찰의 상징인 무궁화 형태의 철제 장식이 부착되고 모정하단의 모자 안쪽으로는 압축된 스펀지를 장착시켜 착용감, 안전성을 높인다. 전면 중앙 부위에는 경찰모장이 장착된다.



<그림 15> 정모 및 예모 도면 (단위 : mm)

(2) 통일성, 활동성

모자의 형태가 남, 여경찰 모두에게 어울리는 곡선적인 Hat으로 남, 여 경찰모자의 통일적 형태를 이룰 수 있으며 차별성 및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한국 전통문양을 이용한 모자띠를 양태와 모옥사이에 두른다. 본 연구에서는 돌림문양의 띠를 적용했다. <그림 16>과 같이 실제로 제작된 모자의 무게는 장식물을 포함하여 150g으로 일본 개선정모보다도 더욱 경량화됨으로서 착용감과 함께 활동성을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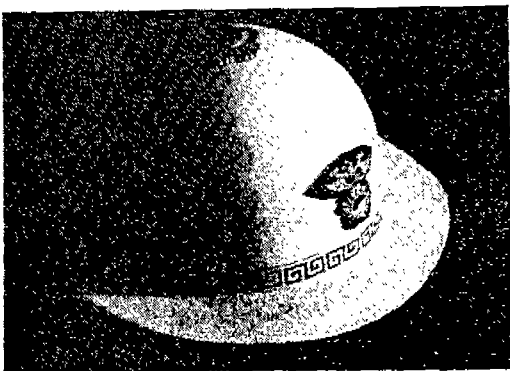
<그림 16> 전립의 형태적 요소가 가미된 경찰정모

(3) 모자 시스템의 간소화

모정에 부착된 장식물과 모자띠의 색상 및 형태를 간단하게 교체하여 부착하므로써 정모를 예모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식물을 직급의 구분에 활용함으로써 다원화된 직급 구분 및 용도의 시스템을 간소화한다.

(4) 재질 및 제작 방법

일반경찰의 모자는 5mm두께의 모 Felt지를 사용하여 압축성형한다. 교통경찰의 모자는 화이버글래스의 압축성형으로 제작한 후 백색도장으로 마감하여 가시성을 높인다. <그림 17>



<그림 17> 교통경찰의 정모

모자띠는 모자의 색상과 동일한 원지에 지정된 색상으로 실크 스크린 한 후 건조시켜 수지코팅을 함으로서 방열, 방수 효과를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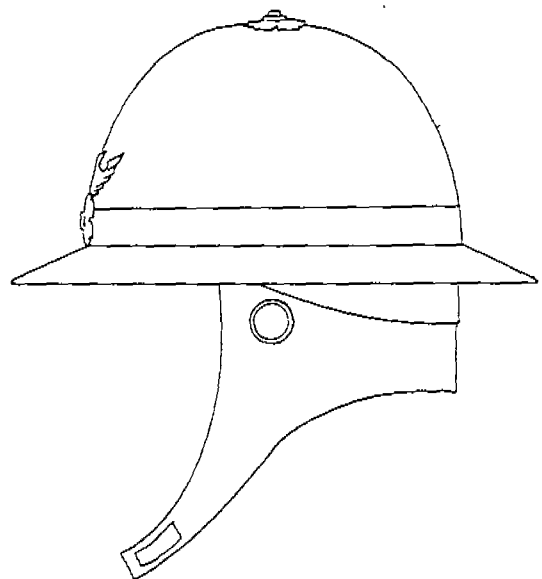
교통경찰의 경우에는 모자띠에 고휘도 반사지를 이용하여 가시성을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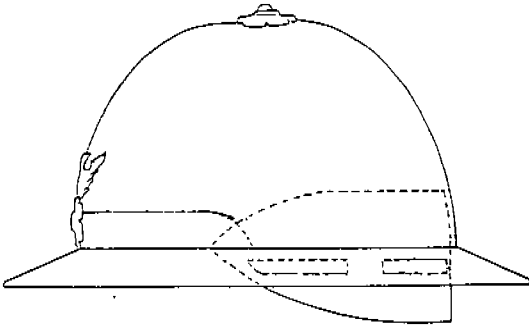
2) 방한모

방한모는 모자 시스템의 간소화 및 경찰모자의 통일성 고취 방안의 일환으로 정모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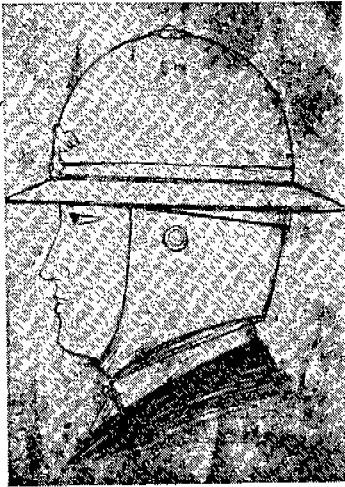
(1) 제작 방법

기 제작된 정모의 모옥하단 부위에 부착되는 땀받이용 압축 스폰지를 <그림 18>과 같이 뒷 부분만 젖힐 수 있도록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 봉제한다. 뒷부분의 안쪽에는 Velcro를 덧대어 봉제하여 <그림 19>같이 별도로 제작된 얼굴 가리개를 부착하여 방한모로 활용할 수 있다. 얼굴 가리개의 턱 여밈 부분 양쪽에도 Velcro를 부착하여 착용이 용이하도록 하며 얼굴 가리개의 재질은 모자와 같은 색상의 모직물로 하고 안감은 같은 색상의 기모된 파일지를 사용한다. 얼굴 가리개의 귀부분에는 지름 2cm의 구멍쇠를 부착한다.





〈그림 18〉 정모를 전용한 방한모의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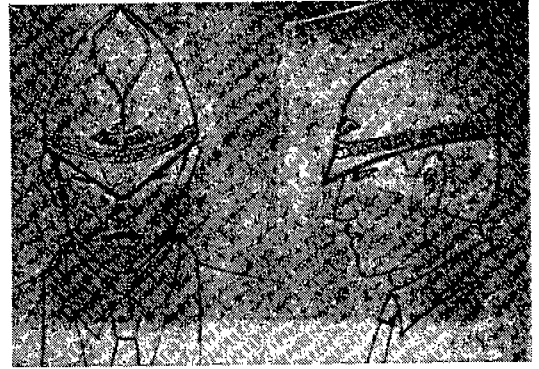
〈그림 19〉 방한모의 착용 예

3) 근무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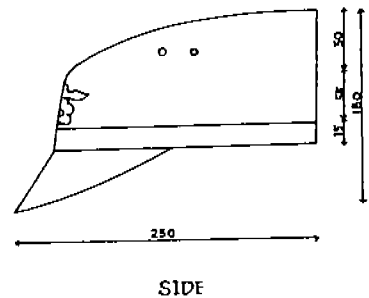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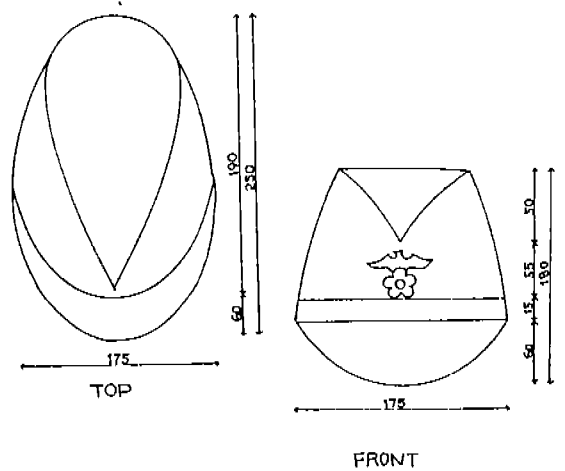
(1) 형태적 특성

일반순찰 및 112기동 순찰 등의 외근 용도로 착용되는 근무모는 기동성이 부여된 Cap의 형태로써 고구려의 관모인 책이나 신라의 태자복에서 나타나는 관 및 그밖의 한국 관모류에서 보여지는 특징인 뒷쪽이 솟아 올라간 모양의 스케치안 〈그림 20〉을 기본 형태로 한다. 측면은 Mono Volume의 간결한 형태이며 뒷부분은 12cm, 앞부분은 7cm로 곡선 처리되며 6cm폭의 챙이 부착된다. 〈그림 21〉 전면은 모정의 양측으로부터 함몰되면서 흘러 내리는 곡선이 정 중앙부위로 모여지는 형태이며 중앙부위에는 자수로 제작된 모양이 부

착된다. 전체적으로 간결하며 후두부가 솟은 한국적 형태의 모자로 전통적 고유성과 차별성을 부여한 활동적 모자의 형태를 지닌다.



〈그림 20〉 근무모 스케치 안



〈그림 21〉 근무모의 도면 (단위 : mm)

## (2) 통일성, 활동성

〈그림 22〉와 같이 실물로 제작한 1종의 모자는 장식물을 포함한 무게가 일반경찰 근무모 77g, 교통경찰 근무모 73g으로 기존 근무모 90g에 비해 대폭 경량화 되었다. 교통과 일반경찰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기존 근무모와 달리 백색 교통경찰모를 신규 아이템으로 추가 교통경찰의 가시성을 높임으로서 활동성을 높인다. 통일성을 위해서는 정모와 같은 심볼로서 모자띠를 적용하도록 하며 남, 여경찰이 함께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서 통일성을 높인다.



〈그림 22〉 실물로 제작된 일반경찰 근무모

## (3) 재질 및 제작 방법

일반 경찰 근무모는 제복과 같은 혼방 모직물을 사용하고 교통경찰 근무모는 모옥에는 세탁이 용이한 백색 인조가죽을, 모자챙에는 착탈 시의 더러움 방지를 위한 제복색상의 혼방모직물을 사용한다.

제작 방법은 디자인에 준해 재단된 2쪽의 모옥과 1쪽의 모칭을 봉제한 후 수지심지가 접착된 쉘을 부착한다. 완성된 모자의 모옥 하단부에 돌림문양의 띠를 부착하고 모자 전면의 중앙부에 모장을 부착한다.

## IV. 결론 및 제언

민생치안과 대인 봉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중요한 제복 아이템으로서 경찰모자와 차별성은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한다.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자의 형태나 색상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모자의 형태 자체가 고유성을 지님으로서 더욱 큰 차별성이 부여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경찰모자의 차별화된 형태적 고유성은 한국의 독자적인 문화 및 조형의식을 표출시킬 수 있는 전통적 이미지를 기본으로 하여 추구됨으로서 한국경찰의 위상과 상징성을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경찰모자의 통일성 및 시스템의 간소화를 위하여는 남, 여 경찰의 성별 구분없이 착용이 가능한 모자형태로의 개선이 바람직하며, 다원화되어 있는 용도별 모자의 종류를 축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능과 활동성을 위하여는 착용감의 배려 및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원부자재의 활용을 도모해야 하며 이와 함께 현대적 심미성이 부각되는 모자로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경찰모자의 형태적 개선을 위한 제 조사와 관찰, 결과에 따른 분석을 통해 두가지 형태의 새로운 경찰모자를 제시하였고, 남, 여경찰이 함께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의 예모, 교통경찰 및 일반경찰의 정모, 근무모, 방한모 등에 대한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관도류의 고유한 형태적 요소를 경찰모자 디자인에 현대적 감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통성을 바탕으로 한 품위성과 형태적 차별성을 높인다.

둘째, 여경, 일반경찰, 교통경찰이 함께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의 모자 및 통일된 형태의 부착물로 경찰 이미지의 통일성을 높인다.

셋째, 정모에 대한 예, 방한모로의 전환사용 및,

모자띠에 의한 직급구분으로 모자 시스템의 간소화를 이룬다.

넷째, 새로운 형태 및 새로운 재질사용에 따른 제작으로 경찰모자의 중량 및 착용감의 개선을 이룸으로서 활동성을 높인다.

이와 같이 활동성과 품위성, 통일성과 차별성, 전통성과 현대성의 이미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새로운 형태의 모자는 세계화 추세속에서 대내외적으로 한국 경찰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새로운 형태의 모자에 대한 실용화 방안으로 외국인과 외부인사와의 접촉이 잦은 공항경찰, 및 내무부 등의 공관경찰이 우선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이은미, 강혜원, 의복단서 및 착용자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의류 학회지(18권 2호), p.198, (1994)
- 2) 강병석, 한국 경찰제복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 학회지 제25호, (1995. 8)
- 3) Collin Mcdowell, Hats, Thames and Hudson, P.P. 124, 125, (1989)
- 4) Collin Mcdowell, 전계서, p.126
- 5) 김화남, 한국 경찰사 제4권, 삼신인쇄, p.53, (1994)
- 6) 김영숙, 손경자, 조선왕조 한국복식도감 상권, 예경산업사, p.62, (1984)
- 7) 강병석, 전계서, p.86
- 8) 조효순, 한국복식 풍속사 연구, 일지사, p.164, (1992)
- 9)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민음사, p.157, (1992)
- 10) 석주선, 한국 복식사, 한국 출판사, p.220, (1971)
- 11) 이팔찬, 리조 복식도감, 동문선, 제86도, (1991)

12) 김영숙, 손경자, 전계서, p.76

13) 김영숙, 손경자, 전계서, p.186

### ABSTRACT

#### A STUDY ON THE FORMAL DEVELOPMENT OF KOREAN POLICEMAN'S HEADG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form of Korean policeman's headgear which is endowed with traditional Korean characters and a creative property that has distinctive from other headgears.

The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through the research of policeman's headgears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United Kingdom, France, Belgium, Italy, Germany and Japan. The domestic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through the Focused Group Interview and analysis on the domestic policeman's service and headgear.

Lastly, the research into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traditional headgear's form was carried out.

Consequently, two types of policeman's headgear, hat and cap were newly developed and the system of practical use was sugges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rough the use of traditional and formal elements of Korean ancient headgears, Korean policeman's headgears were improved in distinction and dignity.
2. Through the use of unisexuai form, policeman's headgears were improved in uniformity.
3. Through the use of transformal accessories, policeman's headgear were improved in simplified system.
4. Through the use of newly formed and

lighten weighted materials, policeman's head-gears were improved in functionability.